

1. 땅의 제사장들은 무식하고 미혹되어 어긋난 길로 가는 자들을 \_\_\_\_\_(동정)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자신도 \_\_\_\_\_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.(2)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\_\_\_\_\_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\_\_\_\_\_를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.(3)

2. 아론 후손 제사장과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

- 1) 공통점-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\_\_\_\_\_에 의해 세움 받았다. 대제사장 직분은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야 했다.(4)
- 2) 차이점-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들은 자신도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운 자들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, \_\_\_\_\_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.(6)

3.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구약성경의 근거(5-6)

- 1) 너는 내 \_\_\_\_\_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(시2:7)
- 2) 네가 영원한 \_\_\_\_\_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(시110:4)

4.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범(7-9)

- 1) \_\_\_\_\_과 \_\_\_\_\_로 기도 하였고, 그분의 \_\_\_\_\_(경건한 두려움)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.
- 2) 아들이시라도 \_\_\_\_\_으로 \_\_\_\_\_을 배우셔서 \_\_\_\_\_하게 되셨다.
- 3) 그래서 순종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\_\_\_\_\_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되셨다.

5. 위의 내용으로 보아 갓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\_\_\_\_\_이었다. ‘①나의 원대로 마시고 ②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’라는 기도에서 예수님의 진짜 기도제목은 어느 것인가?

6. 책망: 너희가 때가 \_\_\_\_\_므로(지금쯤 이면) 마땅히 \_\_\_\_\_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? \_\_\_\_\_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.(12)

7. 젖을 먹는 자는 \_\_\_\_\_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,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\_\_\_\_\_을 분별하는 자들이다.(13-14)

[참 좋으신 주님]

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 
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

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 될 때  
내품에 안기리 주님 말씀하셨네

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 
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

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 
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

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 
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

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 
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 
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

---

광야 같은 세상에서(계 12:1-6)

1. 7번째 나팔 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(11:15~) 하나님은 곧 바로 \_\_\_\_\_를 입고 그 발 아래 \_\_\_\_\_이 있고 머리에 \_\_\_\_\_이 달린 면류관을 쓴 한 여자를 보여 주셨는데 이 여자는 오늘날의 \_\_\_\_\_이다.(1)

2.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였지만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버리셨고 여자(교회)는 \_\_\_\_\_로 도망을 갔고, 용은 \_\_\_\_\_으로 내어 쫓겼다.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\_\_\_\_\_이고, 그 아이를 삼키려는 붉은 용은 \_\_\_\_\_이다.

3.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여자를 \_\_\_\_\_했지만, 여자는 \_\_\_\_\_날개를 받아 다시 \_\_\_\_\_로 갔는데 그곳에서 \_\_\_\_\_을 받았다.(13-15)

4. 우리가 비록 광야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곳이 성곽이 있는 도시보다 안전한 것은 \_\_\_\_\_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.